

8 인터뷰-2022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 손보미 동문(국어국문학 99)



우리학교 글쓰기 수업 교수이자 소설가인 손보미 동문을 만났다.

(사진=이수현 기자)

# 소설에서 비롯되는 능동적인 삶 똑같은 삶임에도 풍성할 수 있어

유경민 기자 gmn0313@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엔 <불장난>으로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손보미 동문(국어국문학 99)으로부터 소설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경희에서 시작된 소설가의 길

“경희대 국문과에 안 왔으면 글을 아예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적 집에 책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지만, 그녀는 본격적으로 창작을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선배를 따라 우연히 들어간 문학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글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소설가로서의 길은 경희에서 시작됐습니다.

2학년이 돼서는 소설 창작 학회

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잘 쓴다는 얘기를 듣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작가로서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결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지금의 배우자인 소설가 김종옥 동문입니다. 손 동문은 “소설 쓰기는 오롯이 작가가 혼자 책임을 져야 해 가끔 외로운 직업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며 결에서 같은 소설가로서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김 동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학회와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도 그녀의 소설 쓰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4학년 때 교양으로 수강한 과학사 수업에서 느낀 흥미는 문학 외적인 내용을 소설로 투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다양한 국어국문학과 지식의 창작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손 동문은 “국어국문학이라고 하면 감성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학의 법칙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라며 “평론, 비평, 어학 등을 다양하게 접하며 소설 창작에 도움이 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 소설과 함께하는 삶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녀는 2009년 데뷔를 했음에도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전환점이 필요했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두고 해 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투고한 단편소설 <담요>는 2011년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그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손 동문은 “작가 자신이 즐겁고 고양되는 창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데뷔 초, 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그녀는 작품 하나 하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설 창작이 소설가 자신을 즐겁게 하고 고양시켜주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읽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창작의 중심이 저한테 더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실제 소설 창작에

도 반영됐습니다. 손 동문은 “소설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떠올린 인물의 결정적인 삶의 순간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 보편적인 감정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이상문학상 심사위원은 그녀를 ‘삶의 자잘한 기미를 통해 서사의 심원한 의미를 끌어 올리는 감각을 지닌 작가’라 평합니다.

이번 <불장난>이 전하는 삶의 순간은 ‘허상이 바탕이 돼 삶의 전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소설에서 불장난의 순간은 인생을 바꿀 만큼의 강렬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일상이 됩니다. 손 동문은 “소설의 불장난과 같은 허상과 이에서 비롯되는 정신승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며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허상이나 착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매체의 홍수 속에서 손 동문이 생각하는 소설의 매력은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행간, 여백, 띄어쓰기 사이의 공간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요즘 책이 하는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책 속 공백을

스스로 이해하려 시도하며 삶이 능동적이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 능동성을 기르는 수업

우리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손 동문은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교양 수업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며 “관심 있는 내용을 듣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것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동문은 자신의 수업을 듣고 삶의 관점을 능동적으로 정립하게 된 학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글쓰기 2 강의에서 동물권에 대한 수업을 듣고 공장제 축산 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고기를 줄이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메일을 보내온 학생이 있었다”며 “수업을 통해 학생이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정했다는 점이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손 동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다시 세상에 투영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삶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잘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